

‘광주역 존치’ 찬반논란 재점화

찬성 “KTX 재진입 추진... 시민 편의성 증대”

반대 “재개발해 쇼핑객 유치로 상권 살려야”

존폐 논란이 한창인 광주역이 존치하는 쪽으로 결론나면서 찬반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광주시와 일부 대학교수 등 전문가, 지역 국회의원 등이 광주역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부 주민들과 북구청, 북구 구의원 등은 광주역의 폐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측의 논리가 한쪽 편을 들기 힘들 정도로 팽팽해 당분간 존폐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 발전을 위해 존치해야”=광주역을 존치하기로 결정한 광주시의 입장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교통측면에서 호남고속철도 본선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KTX의 광주역 진입시 광주 승정역과의 상호보완이 가능하다는 게 광주시의 논리다.

광주시는 특히 광주시민의 생활권과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최종 목적지의 이원화(송정역, 광주역)에 노선 선택폭이 확대돼 시민들의 편의성도 증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구도심과의 접근성, 동·북부권 시민의 교통 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시는 또 광주도시철도 2호선과의 교통연계를 위해서도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광주역(폐지 후) 개발시 풍선효과를 유발하지 않고 신규 경제 효과를 창출할 만한 사업 대안 발굴에 한계가 있는데, 지난 2010년 코레일이 광주역 개발 민간공모시 제안자가 전무할 정도로 민간업자들의 개발 관심이 없다는 점도 존치를 결정하게 된 이유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내년 6월 개통 예정인 KTX수서발 노선을 광주역으로 유치하는 한편 현재 대전을 경유해 익산까지만



광주시 북구 중흥동 일대 20여만㎡의 광주역이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하늘에서 본 광주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운행(1일 편도기준 9편)되는 KTX를 광주역까지 연장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도심 개발 나서야”=광주역 폐쇄를 찬성하는 역 인근 주민들과 북구청, 북구 구의원들은 광주역을 폐쇄하고 신규도로를 만든다면 ▲단절된 남·북 도시공간 연결에 따른 북·동구와 서구의 균형발전 ▲상습정체 해소, 평균교통 이동속도 향상, 대중교통 이용시간 단축 등 교통환경 개선에 따른 사회적 교통유발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클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노후한 광주 북구청사와 북부경찰서, 시교육청 등 행정기관과 복합 쇼핑몰 등을 광주역 자리로 유치한다면 낙후한 북구의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가 추진중인 KTX의 광주역 재진입 등이 가능할 지도 의문인데, 진입하더라도 광주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지도 미지수다.

현재 하루 평균 새마을호와 무궁화 9편이 운행중인 광주역의 이용객이 1000명 안팎에 불과하며, 광주시의 주장처럼 일

부 KTX를 재유지한다해도 인근 상권을 활성화할 수준의 승객 증가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광산구도 KTX역이 송정역과 광주역으로 이원화될 경우 역세권 모두 동반 침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광주 북구 주민들과 일부 구의원 등으로 구성된 광주역·철길 시민 환원 대책위원회는 30일 광주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에 광주역사·철길 폐쇄 및 지역민 환원을 요구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아시아문화원 원장 후보 4명 압축

시민단체 “공채 없는 추천, 투명성 문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전시·공연, 운영 프로그램) 창작 등을 도맡게 될 아시아문화원의 원장 후보자가 4명으로 압축됐다.

2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김성일)에 따르면 최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등을 거쳐 아시아문화원장후보를 4명으로 압축, 임명권자인 문

화부장관에게 추천했다. 추천위는 원장후보들에 대한 평가순위는 매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는 현재 이들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고 있다.

문화전당측은 문화원장을 공개채용할 경우 과거 아시아문화개발원장 선임 사례처럼 응모자가 소수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추천방식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광주 지역 시민·문화단체는 “문화원장 선임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광주시연합회, 광주민족예술단체 총연합, 광주문화도시협의회 등은 공동성명을 내고 “문화원장 후보로 추천된 사람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를 생략한,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선정 과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미래를 위해서 아시아문화원은 최소 300명 이상으로 조직이 구성돼야 하는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

한다”며 “문화부는 전당 개관, 콘텐츠에 관련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화전당측은 인력 200명 확보를 목표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콘텐츠 구축을 맡고 있는 아시아문화개발원을 확대·개편해 오는 8월에 출범할 법인이다. 이 법인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과 관련한 일부 업무를 문화전당으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는 법인으로 문화전당 콘텐츠 창작과 문화상품 유통 등 수익사업을 추진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평화의 소녀상’ 시청사에 건립

옛 도청앞 5·18 광장 무산

14일 ‘시민의 숲’서 제막식

‘광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 장소로 광주시청사 내 ‘시민의 숲’이 최종 확정됐다.

광주시는 “다음달 12일 전까지 소녀상을 완공하고, 광복 70주년을 앞둔 다음 달 14일 오후 3시 30분 ‘시민의 숲’ 앞 녹지공간에서 제막식을 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광주 청년봉사단체인 ‘착한 사람들의 모임(착사모)’은 지난 1월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와 크라우드 펀딩, 기업 등을 통해 총 1300여명에게 3200만원을 후원받아 소녀상 건립에 나섰다.

애초 광주시는 장소 선정·사후관리 지원 등을 약속하고 착사모와 논의해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 건립하려 했으나 5·18 기념사업위원회가 5·18 사적지 보존과 향후 동상 건립 난립 우려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면서 무산됐다.

동상은 재능기부를 한 서울대 조소과 대학원생 엄중섭(25)씨와 조각가 안경진(39)씨가 서울의 한 여중생을 모델 삼아 제작 중으로 높이 290cm, 폭 140cm 규모다.

동상 제작진은 그동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건립 부지 답사, 디자인 준비 등을 해왔다. 이날 제막식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활동과 근황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선보이고 여성단체의 오케스트라 연주도 예정돼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관계자는 “착사모 회원들이 지원 등을 약속하고 착사모와 논의해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 건립하려 했으나 5·18 기념사업위원회가 5·18 사적지 보존과 향후 동상 건립 난립 우려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면서 무산됐다. 동상은 재능기부를 한 서울대 조소과 대학원생 엄중섭(25)씨와 조각가 안경진(39)씨가 서울의 한 여중생을 모델 삼아 제작 중으로 높이 290cm, 폭 140cm 규모다. 동상 제작진은 그동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건립 부지 답사, 디자인 준비 등을 해왔다. 이날 제막식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활동과 근황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선보이고 여성단체의 오케스트라 연주도 예정돼 있다.”

종이통장 120년만에 사라진다

9월부터 단계적 감축

우리나라 은행의 태동기부터 100년 넘게 이어진 종이통장 발행 관행이 사라진다.

단계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9월부터 2년간 종이통장을 원하지 않는 고객에게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하되, 기존 고객도 통장을 재발행할 때 의사를 확인해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인센티브로는 금리 우대, 수수료 감감, 경품 제공, 무료서비스 등이 거론된다.

2단계로 2017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는 신규 고객에게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원칙을 적용한다. 다만,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금융거래기록 관리 등을 이유로 종이통장을 희망할 때는 발행해준다. 3단계인 2020년 9월부터는 2단계 원칙을 유지한다.

이런 내용의 ‘통장 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원은 1단계로 오는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는 고객에게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하되, 기존 고객도 통장을 재발행할 때 의사를 확인해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인센티브로는 금리 우대, 수수료 감감, 경품 제공, 무료서비스 등이 거론된다.

2단계로 2017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는 신규 고객에게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원칙을 적용한다. 다만,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금융거래기록 관리 등을 이유로 종이통장을 희망할 때는 발행해준다. 3단계인 2020년 9월부터는 2단계 원칙을 유지한다.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é] 떡갈비,삼겹살 & 돈가스

아이엘리시아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平日 12,500원	8,500원	5,000원
토·일, 공휴일 14,500원	9,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가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투데이 경매

중흥동 대지 대인교차로인근 일반상업 지역 도로인접 오피스텔 무인텔 적합 대지 3190㎡ (965평) **감정가 40억 8천** **최저가 28억 2천**

전남 담양군 삼만리 담양 예코 하이테크 농공단지 식품가공공장 (단층건물 4동 기계기구 포함) 대지 5636.5㎡ 건물 873㎡ **감정가 9억 8백** **최저가 6억 3천 6백**

전남장성군 북이면 식품공장 백양사 IC인접 교통입지우수 2012년 신축건물 투자적합 NPL가능, 공장 창고 임대가능 대지 9341㎡ 건물 2031㎡ **감정가 41억 4천 7백** **최저가 11억 9천**

1.광주 평동공단 공장 대지 2073㎡ 건물 1187㎡ **감정가 16억 3천** **최저가 9억 1천**
2.화순 도곡면 천암리 공장 대지 2811㎡ 건물 1474㎡ **감정가 7억 6천** **최저가 5억 4천**

투데이옥션 이현석부장
010-9963-6345